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

－교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호형*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국어생활사 교육의 전개와 지향
Ⅲ.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향
Ⅳ. 국어생활사 교육의 교재화 방안
Ⅴ. 나가기

Ⅰ. 들어가며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은 아직 국어교육의 인접 학문에서 쌓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법 교육으로 논의를 한정한다면 인접 학문인 국어학에서 세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문법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그것이 교실에서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1] 이를 지식 중심의 문법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경우 국어생활 또는 삶 중심의 문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어생활사 교육이 기존의 체계적인 학문 문법

* 동국대 박사 수료, 서울서라벌고등학교 교사(littletree7785@hanmail.net)

1) 그동안의 문법 교육을 반성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법 교육을 성찰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학교 현장, 특히 고등학교 국어 교실에서는 역동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의 교육적 설계를 바꾸어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교육적 모색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체계로서의 문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언어 사용자가 삶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국어생활사 교육이 국어교육계에서 확고하게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국어생활사 교육이 국어교육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우선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어생활사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국어교육학계나 국어국문학계의 선행 연구를 꼼꼼히 살핀 후, 국어생활사 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법 교육이 구체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전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언간에 주목하여 언간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국어생활의 모습을 토대로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설정은 국어생활사 교육이 학교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단원 구성을 이끌어내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어생활사 교육의 전개와 지향

1. 국어생활사 교육의 선행 연구와 문제 제기

‘국어생활사’라는 명칭은 김광해(1996)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은 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연구 주제이다. 이장희(2008)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자생의 생활사’와 ‘유입의 생활사’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장희(2008)의

논의는 '생활사'가 연구 영역인지 연구 방법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연구 목적이 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 국어교육에서의 국어생활사 논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국어생활사 또는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를 생활사 연구와 국어생활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생활사[2]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을 살펴 볼 수 있다. 허재영(2008)의 경우 어문생활사 연구는 기존의 국어사, 국어교육사, 문화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 공동체의 의사 소통 방식의 발전 모습을 기술하고,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장희(2008)에서는 생활사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면서 서구에서 행해진 어문생활사 연구를 통하여 방법론을 익히고, 자생의 생활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법론을 정리한다면 한국식 생활사 연구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태린(2009)에서는 국어생활사도 역사학계의 생활사처럼 국어의 내적 구조에 쏠려 있던 기존의 관심을 언어 사용자로 확장시키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언어생활과 그 저변의 양식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2010)에서는 국어생활사라는 용어가 갖는 여러 한계를 들면서 한국 어문생활사가 적절함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어문생활사는 말과 문자를 통한 인간 활동의 변천사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과 밀착된 언어 요소가 어문생활사의 연구 대상된다면서 공시적·통시적 기술이나 '기술-설명-해석' 등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생활사' 측면에서 국어생활사를 접근한 논의들은 세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2) '생활사'는 생활사를 역사 연구의 분야로 보는 것과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우인수(1999 : 825～826; 조태린, 2009 : 353에서 재인용)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 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논구하는 역사 연구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곽차섭(2001 : 167～171; 조태린, 2009:353에서 재인용)에서 일상, 문화, 미시라는 핵심어로 역사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보고 있다.

관심이 있어 현상을 기술하고 기술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다음으로 조태린(2009)를 제외하고는 '어문생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어를 교과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생활사 영역의 일부로 바라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국어생활사를 한국 문화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가 명칭이나 연구 대상, 연구 영역 및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국어생활사 연구를 하는 궁극의 목적은 외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국어생활'의 측면에서 접근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민현식(2003 : 201~268)에서는 위기에 빠진 국어사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국어사 학습과 국어문화사 학습의 절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어문화'는 '국어 영역 내에서 문화 현상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은성(2007)에서는 국어교육학에서 어문생활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대상이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실현태인 학습자의 독서, 작문, 화법 활동에 있기 때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어 어문생활사를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로 규정하였다. 장윤희(2009)에서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를 "국어의 문화적 가치, 국어사와 국어 문화의 관련성 이해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국어생활이 국어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의 이해를 통한 발전적 국어 문화 창조의 태도"라고 밝히고 있다. 구본관(2009)는 국어생활사의 위상을 검토하면서 국어생활사가 국어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어생활사를 국어교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와 국어생활사를 절충하면 적절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우(2009)에서는 미시사적 접근과 문화론의 대두, 문법 교육에서 통합론과 학습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 등을 국어생활사 교육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로 지식의 이해, 현실적 효용성(실용성) 제공, 탐구학습, 국어 관련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부분

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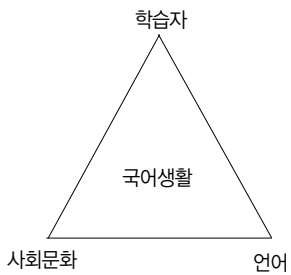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국어생활' 측면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에 접근한 논의들은 교과로서의 '국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이는 국어생활사 교육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국어사 교육을 '지금여기'의 교실 상황에 적합하게 구안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교육적 효용에 목표를 두고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밝히는 것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어생활사 교육의 큰 흐름은 이러한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으로 수렴되어 그 교육적 효용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국어생활사 교육의 이론을 애써 만든 목적이 국어교육의 실천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찰과 실천으로서의 국어생활사 교육

국어 교육의 대상이 국어생활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국어생활'에 주목하지 못해 국어생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어생활을 '국어로 영위되는 언어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김대행(2006 : 2)에서는 국어생활의 핵심이 '살아감'과 '활동'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황혜진(2007 : 328)에서는 독서가 문화적인 실천임을 언급하면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독서생활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독서생활이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면, 그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국어생활'도 당연히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생활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볼 때, 국어교육적 시각에서 국어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최인자(2005 : 126)에서 "언어문화교육은 특정 유형의 문화를 배

3)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생활사를 '국어+생활사'가 아니라 '국어생활+사'의 구조로 바라봄을 알 수 있다.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의 포괄적인 관계를 이해하여, 기호적 자원을 읽고 분석, 평가, 교류, 창조하며 자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영역"임을 밝힌 논의 역시 국어생활의 발전 방향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생활' 과목이 설정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어 생활'(교육인적자원부, 2001 : 91-123)은 "국어를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실제 생활에서 잘 부리는 경험 쌓기로 접근하여 국어 생활의 유의미성을 살아 있는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국어 현상을 바탕(질료)으로 한 국어의 규범적·사회적·문화적 작용태를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함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에서 핵심어가 '능동적 실천'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능동적 실천'이란 "단순히 실용성이나 실제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용자의 해석력, 비판성, 창의성 등의 주체적 관여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국어생활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어생활의 구성 요소

위 그림은 국어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어생활을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로만 보지 않고, 학습자의 인지(사고)와 사회문화와 언어(국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언어활동의 총합으로 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본다면

학습자 측면은 언어 사용자가 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감을 보여준다. 사회문화 측면은 언어 사용자가 구체적인 언어 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맥락이나 언어 환경, 언어 의식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 내지 내적 구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어생활의 교육적 존재 이유가 곧 인간 이해의 길임을 알려 준다. 김혜숙(2005 : 393)에서는 국어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서 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언어와 사회와 문화를 한 맥으로 잇는 인간 이해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어생활의 구성은 2009 문법 교육과정에서 착안했다. 2009 문법 교육과정은 '국어와 앎, 국어와 삶, 국어와 규범, 국어와 얼'을 내용체계로 하고 있다. 이중 국어와 앎은 기존의 체계 중심의 문법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는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언어'에 해당할 것이다. 국어와 삶은 국어 사용자가 국어로 영위하는 삶이므로 '학습자'에 견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어와 얼은 보다 높은 층위에서 국어 사용자의 국어활동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이를 '사회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생활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국어생활은 '국어 사용자가 체계적 국어 지식을 익히고 이를 언어 활동으로 실천하는 총체적인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어생활을 이와 같이 본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은 "사용자가 국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담아낸 결과물들을 시간이나 공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시킨 것(구본관, 2009 : 16)과 연관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어생활사 교육은 학습 주체가 과거의 국어생활 모습을 통해 지금 여기의 국어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국어생활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언어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생활의 구체적 실현태인 과거의 언어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국어생활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과 수행을 통해 미래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국어교육학의 하위 분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장윤희(2009 : 305)와 7차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국어생활 과목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4]

1. 과거의 언어자료로부터 선인들의 국어생활을 이해한다.
2. 선인들의 국어의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여기의 국어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한다.
3. 과거와 현재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문화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사 교육의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각 교체되거나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5] 그동안 국어사 교육이 문법영역의 테두리에서만 진행되는 한계를 보였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은 매체언어가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 통합되었던 모습처럼 국어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화법생활사 교육, 작문생활사 교육, 독서생활사 교육 등의 세부 국어생활사 교육으로 나아갈 첫 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

---

4)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께서는 기존의 논의와 차이점이 없다고 평가하셨다. 하지만 기존의 목표가 국어문화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연구에서 밝히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는 '실천'과 '성찰'에 주목하고 있다. 실천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어생활사 교육은 실천적 성향이 강한 국어생활의 역사를 다루는 국어교육의 하위 분야이기 때문이다.

5) 기존 연구에서는 국어사 교육을 국어생활사 교육과 구분하거나(장윤희, 2005; 2009), 국어사 교육을 국어생활사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도영, 1999; 김은성, 2004). 하지만 구본관(20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국어사 교육과 국어생활사 교육이 분리되어 가르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사 교육이 국어생활사 교육의 하위 영역에 놓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설정은 국어사 교육을 국어교육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어사를 텍스트 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국어생활사 교육이 실제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내적 체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다른 영역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천착을 통해 후고에 논하기로 한다.

Ⅲ.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향

1. 자료로서의 언간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교육은 홀대를 받아왔다. 이는 문법교육 내용이 언어 사용의 실제보다는 이론과 지식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기 때이다. 즉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학자 중심의 시각에서 교육 내용을 제시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재미없게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송현정, 2010 : 236).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국어사 교육이 처한 사정 역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사 교육의 대안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대안'은 교육내용의 전폭적인 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국어생활의 관점으로 국어사를 새롭게 조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언간'을 국어생활사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간이 국어생활사 교육의 자료로서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국어 교과서에 언간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2007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언간이 언급되고 있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7)]

㉮ 김대행 외(2010), ㉯ 김종철 외(2010), ㉰ 문영진 외(2010)
㉱ 민현식 외(2010), ㉲ 박갑수 외(2010), ㉳ 오세영 외(2010)
㉴ 윤여탁 외(2010), ㉵ 윤희원 외(2010)

이들 교과서의 해당 단원들은 대부분 2007 교육과정 10학년 문법 영역의 "(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들이다. 이 단원에 제시된 언간은 '이응태 처의 언간'이 4종에 실려 가

7) 앞으로의 교과서 분석은 저자를 거론하지 않고 저자 앞에 명기한 한글로 해당 교과서를 지시하기로 한다.

장 높은 빈도[8]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국어사, 특히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와 같은 시기별 국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에서는 대단원의 명칭을 '국어생활의 역사적 흐름'으로, 소단원은 '중세의 국어생활'로 설정하고 있고, 학습 활동에서도 국어생활의 변화나 국어생활의 모습, 국어생활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제시되어 있어, 단순한 국어사만을 주입하는 학습 단원이 아님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다. ㉯에서도 '현풍 곽씨 언간'을 통해 17세기의 국어생활을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학습활동 중 "자료 3(현풍 곽씨 언간)의 서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한글 사용 계층과 한글 교육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바를 말해 보자."는 기존의 국어사 관련 활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형으로 국어생활사 교육의 관점에 기초하여 작성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소단원에서 제시된 '정조 언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고 있는 데 반해 학습활동에 제시된 '이응태 처 언간'을 통해서는 높임법을 묻고 있고, '편지글의 생활사적 의의'에 대해 말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국어생활사 교육을 실현하고자 애쓴 집필진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2007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교과서는 아직 종래 국어사 위주의 관습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어 국어생활사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구본관(2009 : 18)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국어생활사 교육의 실현 방안으로 국어사 교육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검토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자료는 '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중세 국어의 특징이나 근대 국어의 특징만 알게 하려는 집필 의도라면 구태여 언간을 제시할 이유가 없지만 굳이 언간을 언어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언간을 통해 국어생

8) 교과서별 수록 언간(발신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응태 처 선조	완산 이씨	응태 처	응태 처	현풍 곽씨	인선 왕후	정조 응태 처	인선 왕후

활사의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국어교육학계와 국어국문학계에서는 언간에 대한 논의를 많이 누적시키고 있다. 그 중 국어생활사 또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관점에서 언간에 집중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문환(2002 : 133~145)에서 언간은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하는 수단이었기에 언간에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 당대의 일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당시의 자연스러운 국어생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라고 제시한다. 이상호(2002)에서는 국어생활사 연구의 대상으로 언간을 들고 있다. 언간은 한글이 창제된 후 한글로 기록된 언해류나 시가류 등의 텍스트들과는 달리 일상적인 국어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이 설정 이유에 해당한다. 김은성(2004)에서는 국어생활사 관점에서 격식적 언간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규합한훤(閨閤寒喧)을 순수 국어학적 분석이 아니라 이용 주체, 상황 맥락 등을 바탕으로 당대 사람들이 의사소통한 국어 자료로 살펴보고 있다. 백낙천(2007 : 188)에서는 언간을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학습자가 문학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언간의 교수-학습은 삶을 내면화하고 구체화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언간은 당시의 생생한 생활사나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국어 생활사 자료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유범(2009)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일상 생활에서 훈민정음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언간이므로 선인들의 생생한 국어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언간을 국어생활사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언어자료로 선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백두현(2010)에서는 언간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국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문생활사 연구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언간에서 언어예절법과 호칭어, 지칭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지명과 인명, 의식주 관련 어휘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언간은 선인들의 국어생활을 이

해할 수 있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간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데 적합하다. 이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대인 관계를 보여 주는 언어 예절이나 호칭어, 지칭어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일상의 의사소통이 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선인들의 사적(私的)인 국어생활을 세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2. 국어생활사 교육의 설계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은 앞에서 살펴 본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어생활사 교육이 그 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양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에는 '국어생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국어생활사 교육이 실현된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국어생활 과목은 '(1)국어와 우리의 삶', '(2) 국어생활의 실천', '(3) 국어생활과 국어정신'의 세 영역으로 내용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국어생활사 교육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하는 영역은 '(2) 국어생활의 실천'이다. 특히 '(2)-나 문화 속의 국어생활'은 국어생활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어생활사 교육이 보이는 문화교육적 성격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속의 국어생활'은 국어생활이 전통 문화와 생활 문화, 매체 환경과 연관 지어 교육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주로 '(1)국어생활과 전통문화'에서는 과거 선인들의 국어생활 모습을 통해 이를 국어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을 삼고 있으며, '(2)국어생활과 생활문화'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어휘를 국어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3)국어와 매체환경'에서는 현대 언어 환경에 적합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본관(2009 : 9)에서는 위의 내용 중 (1)-③인 "우

리 고유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관용어, 전통적 말놀이, 금기어, 수수께끼, 고유 지명 등에 담겨진 국어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만 국어 생활사와 연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어 문화의 통시적 양태만을 고려한 것일 뿐, 그 전통 문화가 교육되는 '지금여기' 국어교실에서의 공시적 상황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은 선인들의 국어 생활을 전통으로 받아 들여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 내용으로 적용해 문화의 규범성 내지 문화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교육적으로 기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어생활사 교육에서는 통시적 양태와 그것이 교수-학습되는 '지금여기'의 공시적 상황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9)]

한편 '문화 속의 국어생활' 범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다분히 어휘적 측면에만 머물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어휘를 통해 국어생활사를 교수-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선인들의 국어생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적 측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국어생활사 교육은 선인들의 국어생활의 모습이 온전히 녹아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국어생활사 교육이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언간이 읽기 텍스트로 제공됨을 말해 준다. 송현정(2010 : 239)에서는 문법에서 독서와 마찬가지로 이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 속성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읽기 텍스트가 문법 고유의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한 지식 및 이해 활동의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문법은 지식과 체계를 기반 지식으로 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텍스트 읽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댄다면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은 언간이 읽기 자료로도 활용되지만 국어생활의 달라진 모습을 유추하는 탐구 자료로도

9) 7차 교육과정을 계승한 2007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생활 과목이 사라지고 그 내용이 문법 과목의 '국어와 얼'영역에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다. 특히 '③ 선인들의 국어생활' 항목에서는 7차의 국어생활 과목에서 보이는 교육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에 "국어 수난의 역사를 이해하고, 국어를 지키고 사랑한 선인들의 삶이 지니는 의의를 설명한다."는 교육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용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또한 언간을 읽기 자료로 제시한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은 언간을 중심으로 읽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통합된 활동으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언간을 읽기 텍스트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활동을 구안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장르 중심 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Knapp・Watkins(2005, 주세형・김은성・남가영 역, 2007 : 17-18)에서는 '텍스트'를 언어에 의해 생산되고 수용되는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이 모이면 장르가 되는데 이때 장르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될 수 있다(이상호, 2002 : 93). 이러한 장르 개념에는 장르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반응, 즉 언어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역동적으로 소통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Kress(1989)를 요약하고 있는 Knapp・Watkins(2005, 주세형・김은성・남가영 역, 2007 : 12)에서는 장르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매 순간마다 생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텍스트는 없음을 말해 준다. 오히려 개별적인 텍스트는 사회적 제약 내에서 기존의 장르적 유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별 사회적 주체의 행위 결과로 보고 있다. 장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인 소통 행위로 보아왔던 언간을 사회적 소통 행위로 볼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안민학 언간' 등의 일부 애도문 형식의 언간이 보이는 특이함은 언간을 사회적 소통 행위로 주목했을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안민학 언간 등의 일부 언간들은 언간이 소통되던 맥락과 사대부가에서 행장이나 묘지명 등이 행해지던 당대의 문화적 맥락이 서로 간섭하면서 생겨난 변이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경우 언간은 장르적 특성을 알려주는 읽기 자료의 성격과 문법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자료로서의 성격을 아우르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 문화의 원심력과 구심력[10]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10) 국어 문화는 한국인으로 갖추어야 할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며, 언중들에 의해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전자를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구심력이 될 것

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국어생활의 변화가 보이는 통시적 측면과 함께 해당 언어 공동체가 보인 당대의 공시적 측면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언간은 읽기 텍스트로 제공되어 언간을 둘러싼 삶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며, 이와 동시에 탐구 활동의 자료로도 제공되어 이를 토대로 당대 국어생활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었다.[11]

〈표 1〉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table>
<tr><td colspan="2">[실제]
· 언간(안민학 언간)</td></tr>
<tr><td>[지식]
·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언간 특성 이해하기
· 중세의 국어생활 특징 이해하기
· 언간에 나타난 언어 예절을 이해하기</td><td>[탐구]
· 언간을 읽고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여 언간의 의미 이해하기
· 언간과 행장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국어생활 평가하기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지를 쓰고 발표하기
· 언간의 원문을 읽고 현대어와 다른 어휘 찾기
· 근세 국어생활을 알려주는 언간을 읽고 중세 국어생활과 비교하기</td></tr>
<tr><td colspan="2">[맥락]
· 상황맥락–남편이나 부인의 죽음
· 문화맥락–애도문(행장이나 묘지명)의 전통</td></tr>
</table>

이다. 졸고(2008a : 24)에서는 바흐친의 언어 개념을 차용하여 언어 문화의 역동적 구조를 설명한 바 있다.

11)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어생활사 교육의 내용 체계를 먼저 잡고 그 안에서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지 못 했기 때문에 <표 1>은 국어생활사 교육의 전체 모습을 아우르지는 못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나마 언간이라는 자료에 주목하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각종 유의미한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언간의 장르적 특성이 더욱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언간 이외의 언어 자료에서도 국어생활사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안되어야 하겠다.

위 표는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을 2007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 2007 교육과정은 '실제' 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 선정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 내용 또한 주된 텍스트인 언간을 중심으로 '지식-탐구-맥락'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였다. 지식 범주에서 언어 예절을 선정하고 있는 것은 언간이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대인 의사소통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 서로 간 예절을 지켜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탐구 범주는 학습자가 언간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국어생활에 적용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또한 언간에서 보이는 당대의 국어생활을 관찰하고 이를 다른 시대의 국어생활 또는 현대의 국어생활과 비교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맥락 범주에서는 상황 맥락과 문화 맥락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언간이 갖는 장르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즉 동일한 상황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언간'과 '행장(또는 묘지명)'으로 다르게 산출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안민학 언간' 등 일부 애도적 성격을 띠는 언간은 언간의 전통과 행장의 전통이 교섭하면서 생긴 변이형에 해당함을 고려한 것이다.

Ⅳ. 국어생활사 교육의 교재화 방안

1. 교재화 방안의 원리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교재화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

12) 이번 연구에서의 '탐구'는 사고의 과정 및 절차, 그와 관련해 수행해야할 활동 혹은 체득해야 할 '기능'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능'으로 제시하지 않고 '탐구'로 제시한 것은,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가 주로 문법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생활사 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문화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인 접근은 언어와 문화의 상호성을 전제로 융합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인데,[13] 박인기・박창균(2009)에서는 여기서의 언어가 '체계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사용으로서의 언어'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으로서의 언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의 특성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환경,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생활사 교육은 기존의 국어사 교육이 보여 왔던 지식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화자의 삶의 맥락과 학습자의 삶의 맥락이 함께 작용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의 텍스트와 그 당시 언어의 특성, 그리고 삶의 관련성 등이 한데 녹아진 교육적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언간, 특히 한 인간의 삶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있는 애도(哀悼)적 성격의 언간이라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국어 활동의 통합을 통해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생활사 교육 또한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이므로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그리고 소통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언어 활동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텍스트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언어 기능보다는 통합된 언어 활동이 적합하다. 이에 따라 통합의 양상은 '읽기 활동－토의(토론) 활동－쓰기 활동－발표 활동'으로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읽기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언간이 고어로 표기되어 있어 이독성(易讀性)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어역으로 텍스트를 제시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13) 언어와 문화가 융합하는 관점을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문화'라고 한다. 언어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인자(2005)와 졸고(2008a)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는 국어교육이 언어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자는 국어과 교육에서 언어문화가 반영된 양상을 논구하고 있다.

한다. 토의(토론)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경험하는 해당한다. 학습자는 의미의 교환을 통해 고등 사고력과 의미의 사회적 구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쓰기 활동은 학습자의 비판적 문식성 향상을 위해 좋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학습자는 언간의 의미를 교섭하면서 필자와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과 세계의 관계맺음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활동의 결과나 쓰기 활동의 결과는 마지막 발표 활동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발표 활동을 제시한 것은 학습자는 발표를 통해 언어 예절 등의 정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제 중심의 통합적 교수-학습을 지향하여 학습자가 텍스트 화자의 삶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안하였다. 정혜승(2005 : 344)에서는 주제 중심 접근은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특정 주제에 의해 응집성 있게 묶이며 다른 단원들과는 주제 면에서 차별된다면서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은 학습자에게 맥락 있는 언어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세부 기능의 반복적이고 탈맥락적인 연습은 언어 기능 자체의 습득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상적 국어생활 장면이 배제됨으로 학습자가 그 기능을 배우는 이유와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서 맥락을 강조하는 것에 착안하여 학습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삶의 맥락을 텍스트로 제공하고자 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선 언어 사용 주체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애도문 성격의 언간을 언어자료로 선택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탐구학습을 배치하여 주제 중심 학습에서 배운 텍스트를 언어 자료로 삼아 학습자가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탐구'는 방법이 아니라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에 '어떻게'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당대의 언어문화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당대 화자의 국어 의식

내지 적절한 소통에 대해 이해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므로 학습자가 이미 배운 현대어역과 고어를 비교하여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찰활동과 설명학습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언어 활동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즉 관찰과 설명은 모두 국어 활동의 테두리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한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교재화 방안 원리를 구체적인 교수−학습 단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표 2〉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단원 구성 방안[14]

−단원명 −단원의 길잡이	주제 중심 통합 학습				탐구학습	
	읽기 활동	토의 활동	쓰기 활동	발표 활동	관찰 활동	설명 학습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생활사 교육이 구체적인 고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고어 학습이 내면화 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10학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1 학습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단원명으로 '죽어도 못 잊을 사람이여!'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단원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아내나 남편 등 사랑하는 살붙이를 죽음으로 여의고 난 후의 슬픔을 그대로 토로하는 언간[15]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단원의 전체 주제와 일치하는 애도문 성격을 지닌 언간인 '이응태 처의 언간'을 제시함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당대 국어생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국

14) <표 2>는 졸고(2008b : 383～413)을 참고하여 이번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변형한 것이다.

15) 이번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언간의 유형이나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간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탓도 있겠지만, 언간이 그 사용역에 따라 매우 다채로운 변화상을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간의 유형과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어생활사 교육의 단원 학습이 가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언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활동으로 소단원에 들어가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단원 학습을 미리 맛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구안하였다.

읽기 활동에서 학습자는 '안민학 언간'을 읽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안민학 언간'을 단원 학습의 중심에 놓은 것은 전체 단원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2009 고교 국어 교과서에서 주목한 '이응태 처의 언간'과는 다르게 남편이 아내의 죽음에 애통하여 쓴 언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이응태 처의 언간'과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가슴을 깊이 적셔 오지만, 그와 다른 국어생활의 흔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응태 처의 언간'은 언간의 주체가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안민학 언간'은 언간의 주체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 양반이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한문 양식인 '묘지명(墓誌銘)'을 작성하지 않고 한글 편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에서 '이응태 처의 언간'에 비해 국어생활사 교육의 관점에서 교수-학습할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안민학 언간'을 통해 국어생활사 교육을 전개할 경우 학습자가 우선 해당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활동이 선행되어야 뒤의 탐구 학습에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생활의 변천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읽기 활동에서의 세부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수-학습의 상황에 적절하게 학습자의 의견을 발표를 통해 들을 수도 있다.

토의(토론) 활동에서는 읽기 활동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알게 된 학습자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재혼(再婚)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재해석될 경우를 묻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장르, 즉 허균의 '망처숙부인김씨행장(亡妻淑夫人金氏行狀)'을 읽고 내용과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활동이다. 전자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 당대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가치관을 균형 있게 바로 보도록

함에 교육의 초점이 있다면, 후자는 서로 경쟁하는 장르가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국어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변이적 형태를 학습자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이 있다.

쓰기 활동은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발견한 다양한 관점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10학년 학습자들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여읜 경험이 없을 확률이 많다. 따라서 죽음의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발견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하여 일정 정도의 수준이 있는 글을 쓰게 하며, 웃어른에게 쓸 경우 언어 예절에 맞게 작성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다. 쓰기 활동을 통해 생산된 텍스트는 다른 학습 공동체와 공유하는 과정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에 대한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국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탐구 학습의 첫 활동은 '관찰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읽기 활동을 통해 읽었던 텍스트를 다시 활용하여 문법 학습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문법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읽기 활동에서 제시한 안민학 언간의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대어로 바꾸어 보게 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 단어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당대의 국어생활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어휘에 밑줄을 그어보고 의미 변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기법의 차이가 의미 파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는 형태음소표기와 음소표기의 차이를 통해 의미 파악에는 형태음소표기가 유리함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를 찾아보고 그 쓰임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는 당시의 국어생활과 오늘날의 국어생활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 학습에서는 관찰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시기의 언어자료를 통하여 설명함으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다른 시기의 언어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현대어로 바꾸어 읽어

보도록 한 후 지금과 다른 언어적 표기를 발견하고, 그의 쓰임과 변천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대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현대어역을 병기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문에서 드러난 '한글 익히기'가 양반 사대부가에서 필요했던 이유를 제시문에서 찾아보게 하였다.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볼 때 양반가에서의 한글 익히기는 주로 아내와의 한글 편지 왕래,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작료 관리를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당대의 국어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단원 구성의 실제[16)]

▣ 단원명

죽어도 못 잊을 사람이여!

▣ 단원 학습 목표

① 언간의 사회적 소통성을 이해하고, 언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언간을 읽고 현대어와 비교하여 당대 국어생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③ 언간에 나타난 언어 예절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부인이 안타깝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이다. 이 글을 읽고 옛 사람들이 한문이 아닌 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이유를 짐작해 보자.

16) '단원 구성의 실제'에서 제시된 텍스트는 분량 관계로 <중략> 형태로 실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텍스트 전문을 제공한다.

원이 아버님께 올리는 편지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그런데 어찌 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셨나요? 나와 자식은 누가 시킨 말을 들으며, 어떻게 살라고 다 던져버리고 당신 먼저 가셨나요? 당신은 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으며 나는 당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요?

……<중략>……

한도 없고 끝이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고 제 꿈에 와서 보이고 자세히 말해 주세요. 저는 꿈에서 당신 볼 것을 믿고 있어요. 한꺼번에 와서 보여 주세요. 사연이 너무 한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가

이 편지는 1998년 4월 24일 안동시 정상동의 택지 조성을 위해 이장(移葬) 작업을 하던 중 고성이씨(固城李氏) 족보에도 미상이었던 이응태(李應台)의 묘에서 발견되었다. ……<중략>…… 남편을 먼저 보내는 아내의 안타깝고 애틋한 사랑 표현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 이 편지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서도 현대인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생각해보기〉

1.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 쓴 편지임을 생각해 보자.
2. 글쓴이의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행했던 관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관습적 글쓰기의 언어는 한문이었는지, 한글이었는지 알아보자.

주 제 학 습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남편이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옛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1978년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글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던 아내를 잃고 아내의 시신 옆에서 쓴 한글 편지이다. 빈한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나, 차례를 지내러 갔다가 아이를 유산한 아내는 그로 인해 병을 얻어 남편의 지극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임진왜란 전에 한글로 쓰인 글이라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옛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남편 안민학은 아내 곽씨의 영혼 앞에 이야기하오.

나는 임인년 생이요. 그대는 갑인년 생으로 정묘년 열엿샛날에 혼인을 하니, 그때 나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그대는 열 세 살이었소. 나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과부의 자식이고 그대는 가난한 홀어미의 자식으로 우리는 서로 만났소. 그대는 어린 아이였고 나는 어른이었으나 어릴 때부터 나는 뜻이 굳지 못했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 부부간에 지켜야 할 법도를 중요한 도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대와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거리를 두었소, 그러니 그대와 내가 정답게 말 한마디 나누고 같이 앉아 밥 한 끼 먹은 적이 있었겠소.

……<중략>……

이 일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병든 내가 그대 상을 치르는 이런 슬픔을 당했으니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소, 죽기 전에는 꿈 속에서나 그대를 보고 서러워하겠지요. 그대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가 살아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돌보겠소? 잊고 편히 가시오.

서럽고 그리운 마음이야 평생 이야기한들 끝이 있겠소만 이제 정리해야겠소. 죽어도 귀신이 있으면 알 것이니 슬픔이 하도 커서 붓을 잡고 쓰는 데 정신이 없소, 글자도 반듯하지 않고 말도 앞뒤가 없으니 자세히 보시오.

승지 아버님과 장령 아주버님께서 일을 많이 살펴주시고, 벗들도 위로하여 두루 돌봐주는 구려. 이제 길게 곡하고 이만 그치겠소.

병자년(1576년) 오월 초열흘, 입관할 때 넣음

읽기/발표 언간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공감한다.

1. | 내용 구조도 | 언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는지 정리해 보자.

주요 사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아내 죽기 전	• •
아내의 죽음	• •
새 장가 들기	• •
묘자리 쓰기	• •

2.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심정을 파악해 보자.

(1) 그대는 어린 아이였고 나는 어른이었으나 어릴 때부터 나는 뜻이 굳지 못했고, ……<중략>……그러니 그대와 내가 정답게 말 한마디 나누고 같이 앉아 밥 한 끼 먹은 적이 있었겠소.

(2) 그 말을 듣고 그대도 좋아하기에 나는 늘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소. ……<중략>……그러나 어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벼이 할 수없어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니, 내 서러운 뜻을 그대는 알까?

토의 · 토론 언간에 드러난 글쓴이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비교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3. 다음 구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글쓴이의 가치관에 대해 말해보고, 이를 당대의 시각과 오늘날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사내 일생을 서러워하면서 홀아비로 살겠소? 내 뜻은 자식을 가지는 데 있으니 ……<중략>…… 우선 그대를 위해 상복을 한 해 동안 입겠소, 첩을 얻든 장가를 들든 아무리 빨라도 상복을 벗은 후에나 할 것이오,

4. 다음은 허균이 한문으로 지은 망처숙부인김씨 행장(亡妻淑夫人金氏行狀)을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이를 읽고 위의 안민학 언간과 비교해 보자.

부인의 성(姓)은 김씨(金氏)니 서울의 대성이다. 고려조 정승 김방경(金方慶)의 현손(玄孫)인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은 고려 말에 이름을 떨쳤고, 벼슬이 삼사(三司)의 좌사(左使)에 이르렀다.

……<중략>……

당신이 만약 앎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슬퍼하리라. 아, 슬프다. 을미년(1595, 선조28) 가을에 길주에서 돌아와, 또한 강릉 외사(外舍)에 묻었다가, 경자년(1600, 선조33) 3월에 선부인을 따라 원주 서면 노수(蘆藪)에 영장(永葬)하니, 그 묘는 선산 왼쪽에 있으며 인좌(寅坐) 신향(申向)이다. 삼가 행적을 쓰노라.

(1)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이를 발표해 보자.

(2) 허균과 안민학은 동시대를 살아간 양반 사대부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같은 상황을 겪게 됨에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종래의 한문 양식인 행장을 작성하는 반면, 후자는 애도문 형식의 언간을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표기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쓰기/발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발표한다. (과제)

5. 글쓴이는 아내와의 애틋한 경험을 중심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보자.

6.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편지를 쓴 후 발표해 보자.

· 상대방과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 언어 예절을 지키며 쓴다.

탐 구 학 습

관찰하기

안민학 언간의 원문을 살펴 현대어로 바꾸어 본다.

1. 다음은 안민학 언간의 일부를 원문으로 표시한 것이다. 앞에 제시된 현대어와 비교하면서 읽은 후 표기법의 차이가 의미 파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를 찾아 보고 그 쓰임이 어떠한지를 논의해 보자.

> 나ᄂᆞᆫ 이민ᄉᆞᆼ이오 자내ᄂᆞᆫ 갑인ᄉᆞᆼ오로 뎡묘년 열엿샌날 합긍ᄒᆞ니 그저기 나ᄂᆞᆫ 스믈 다ᄉᆞ신 저기오 자내ᄂᆞᆫ 나히 열세힌 저기 나도 아바 업ᄉᆞᆫ 궁한……<중략>…… 어마님 우히 잇고 나 ᄒᆞ나 오활ᄯᅩ 졸(拙)ᄒᆞ여 가ᄉᆞ다히ᄂᆞᆫ 아조 촐호 못ᄒᆞ니 고싯(孤媤)긔 보양ᄒᆞ고 ᄒᆞᄂᆞᆫ 졍 극ᄒᆞ다 엇디 홀고

설명하기

다른 시기의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의 모습 설명하기

1. 다음은 17세기 초의 기록물로 당시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에 사용되지 않는 표기를 찾아보고 그 쓰임과 변천에 대해 설명해 보자. 또한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언문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17세기 원문]

요ᄉᆞ이 아히ᄃᆞᆯ ᄃᆞ리고 엇디 겨신고 / 긔별 몰라 분별ᄒᆞ뇌
대임이ᄂᆞᆫ 어제 싱일에 므서슬 몬뎌 잡던고
긔별 몰라 더옥 닛디 몯ᄒᆞ여 ᄒᆞ뇌
……<중략>……
셋재 아기 언문 이제ᄂᆞᆫ 쾌히 셩ᄒᆞ여 이실 거시니
언문 외와 싯다가 뵈라 니ᄅᆞ소
아마도 아히ᄃᆞᆯ ᄃᆞ리고 편히 겨소 / 밧바 이만 / 초아ᄒᆞ랜날

[현대어 풀이]
요사이 아이들 데리고 어찌 계신고 / 소식 몰라 걱정하네
대임이는 어제 생일에 무엇을 먼저 잡던고
소식 몰라 더욱 잊지 못하여 하네
……<중략>……
셋째 아기도 이제는 쾌히 성하여 있을 것이니
언문을 외우고 있다가 보이라 이르오
아무쪼록 아이들 데리고 편히 있으오.
바빠 이만 / 초아흐렛날

Ⅴ. 나가며

문법 교육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다소 도전적인 이 물음은 학교 현장, 특히 입시 위주의 국어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위해'라는 간략하고도 명쾌한 대답으로 마무리되어 문법교육을 지식 중심으로 내몰아 학습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현장에서 문법 과목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상황은 2009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문법'이라는 통합 과목을 만들어 문법 과목의 선택을 올려 보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문법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던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그래서 문법 교육의 문제는 문법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교육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논의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무모하거나 연구자의 역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국어생활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어생활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국어교육이 문화적인 접근, 텍스트 중심적 접근, 국어활동의 통합적 접근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논의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국어생활의 역사인 '국어생활사 교육'을 다루면서 문화적 성격이 가득한 텍스트로 '언간'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역시 국어생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국어생활에 대한 섣부른 도전은 국어생활사 또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에도 역시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구체적인 텍스트로 언간을 제시한 시도는 다소 실험적이다. 특히 언간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없이 연구자의 직감과 체험에 의존하여 10학년의 학습자에게 애도문 성격의 언간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텍스트 설정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1999/2002), 7차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7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구본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8.

김광해(1996), “국어발전의 양상”, 『선청어문』 24, 서울대국어교육과, 123-146.

김대행(2006), “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1-30.

김유범(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교재”,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49-64.

김은성(2007), “국어 어문 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437-468.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201-268.

박인기·박창균(2009), “다문화시대에 되짚어보는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문화”, 경인교대 특성화사업단 C-멘토링 총서1, 학지사.

박형우(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시고”,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73.

백낙천(2007),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언간의 특성”, 『한국언어문화』 제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83-198.

백두현(2003), 『현풍곽씨 언간 주해』, 태학사.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 연구』 제10호, 국어사연구학회, 41-72.

이상호(2002),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장희(2008), “어문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13호, 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333-367.

이호형(2008a), “국어과 교육에서의 언어문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형(2008b),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교섭을 고려한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8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383-413.

장윤희(2005),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107-132.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87-311.
정혜승(2006),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원 구성 방향”, 『어문연구』 34-4, 어문교육학회, 379-400.
조태린(2009), “국어생활사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요소”,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347-368.
최웅환(1999), “16세기 안민학 애도문의 판독과 구문 분석”, 『국어교육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63-288.
최인자(2005), “한국의 언어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93-131.
황혜진(2007),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399-436.
허재영(2008), “어문생활사 연구 대상과 방법”,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135-153.
허 균, “亡妻淑夫人金氏行狀, 惺所覆瓿藁 卷 15 문부 12 行狀”, 한국고전 번역원 (http://db.itkc.or.kr)

<초록>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

－교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호형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어생활사 교육은 기존의 지식 위주 문법 교육을 지양하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아 오던 국어사 교육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특히 기존의 체계적인 학문 문법의 교육적 설계를 바꾸어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체계로서의 문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언어 사용자가 삶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국어생활사 교육이 국어교육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어생활사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어생활사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국어교육학계나 국어국문학계의 선행 연구를 꼼꼼히 살핀 후, 국어생활의 관점에서 이를 구분해 논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언간이 구체적인 국어생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파악하여 이를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의 모습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을 논의한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은 문화적 접근, 텍스트 중심적 접근, 국어활동의 통합적 접근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문법교육, 국어생활사 교육, 문화적 접근, 텍스트 중심적 접근, 국어활동의 통합적 접근

<Abstract>

A Study of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Through Eongan

Lee, Hoh-yung

The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this thesis is to cover rejects the conventional education mainly focused on Korean language grammar conveying just knowledge to students. Rather, it is characterized by a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which has been disregarded at school. This is an educational approach in which the plan for the current systematic academically-selective grammar is changed and the focus is placed on the context of learners' real life. Thus, attention is paid to the real language learners use in their life, not to the grammar as a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recognize the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which shows the life of language learners as invaluable in Korean education and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on which the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Mo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the education need to be clarified. Then a close examination will be made of the preceding studies in the fields of Korean education 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her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study of the education, followed by an effort to classify them and clarify points in the Korean language life perspective. This research is to be conducted through Eongan as it is viewed as a way to show the aspect of specific Korean language life more than any other thing. If the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is sought through Eongan, it will be acquired in

cultural, text-centered, and integrated approaches of Korean language life.

【Key words】 grammar education,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cultural approache, text-centered approache, integrated approache